

제주 무가 <세경본풀이>의 이본 대비

정진희(아주대 기초교육대학)

< 목 차 >

1. 이본 대비의 필요성
2. 이본 현황
3. <세경본풀이>의 상위 삽화
4. 삽화별 하위 단락의 대비
5. 맺음말

1. 이본 대비의 필요성

<세경본풀이>의 이본 대비는 일찍이 박경신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박경신은 <세경본풀이>를 18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본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¹⁾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이본에 대한 예비적 고찰 없이 각기 특정 이본을 대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견해는 <세경본풀이> 이본 양상에 대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 본풀이의 새로운 채록본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본 대비에 더해 새로운 이본들을 논의 대상에 포괄하여 살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주근, 현용준, 진성기 등 이른바 1세대 제주도 본풀이 연구자들의 채록 작업 이후 문무병을 필두로 하는 2세대 연구자들의 채록 자료집이 간행됨으로써, 검토해야 할 이본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선행 연구에서는 제주 무가 채록 및 연구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진성기나 장주근의 채록 자료 중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²⁾ <세경본풀이>의 이본 대비가 1980년대에 이루어져 그 이후에 공개된 이본들을 다루지 못한바, 그러한 이본들을 두루 포괄하는 대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본 대비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이본 대비의 구체적 방법이다. <세경본풀이>가 이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통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단락들과 그 서사구조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³⁾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조차 ‘이본에 따라서 탈락한 부분이 있거나 순서 이동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차이가 보이기는 한다’⁴⁾는 사실을 언급하고

1) 박경신,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참조.

2) 이를테면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의 이달춘 심방 구연본,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의 고대중 심방 구연본이 그것이다.

3) 박경신, 앞의 글, 291면.

4) 위의 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차이를 ‘구연과정에서의 누락이나 기억상의 혼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⁵⁾로 보아 넘겨도 좋은 것일까? 구연 상의 오류와 같은 원인을 살피기에 앞서, 그 ‘차이’의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세경본풀이>의 연구자들이 수십 여 년 동안 이본 간의 차이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않아 그것이 텍스트에 대한 오독으로 이어졌다는 한 학부생의 비판 내지 불만⁶⁾은,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뼈아픈 구석이 없지 않다. 독자의 입장에서든 필자의 입장에서든, 특정 이본을 대본으로 삼아 행한 신화적 해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화소가 그것과 다른 이본에는 없거나 다른 모습이어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세경본풀이> 이본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살펴 각각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 서사무가 중에서도 장편에 속하는 본풀이인데, 하나의 독립적 이야기라고 보아도 좋은 여러 이야기들이 계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각편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논의의 편의상 본고는 독립적 이야기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세경본풀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요소로 기능하는 이야기들을 ‘삽화’라 하고, 이러한 각각의 삽화를 구성하는 서사 단락을 ‘하위 단락’이라 부르기로 한다. 각 삽화를 구성하는 하위 단락의 이본별 유무(有無) 양상, 그러한 하위 단락의 구체적 표현의 같고 다른 양상을 살핌으로써, ‘이본 간 차이에 대한 세밀한 고찰’에 근접해 보고자 한다.

2. 이본 현황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세경본풀이>의 이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이본 ⁷⁾	채록 시기	수록 문헌 제목
1	<박봉춘본>	1931	『조선무속의 연구』
2	<이달춘본>	1956-1963 사이 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	<강을생본>	1959 ⁹⁾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4	<고대중본>	1962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5	<안사인본>	1965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한국고전문학전집-제주도무가』
6	<한행수본>	1979	『한국구비문학대계』
7	<강순안본>	1994	『제주도큰굿자료』
8	<이용옥본>	2008	『이용옥 심방 <본풀이>』

<표 3> <세경본풀이> 이본 현황

이밖에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¹⁰⁾에도 강순선 심방이 구연한 것이 있으나, 중간에 내용이 잘려 있어 위 이본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풍속무음』이라는 필사본에 「

5) 위의 글.

6)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의 기능과 의미」, 『관악어문연구』32, 213면 참조.

7) 각 이본의 명칭은 구연자의 이름을 따서 쓰기로 하고, 구연자 항목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8)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의 ‘일러두기’에서는 사전에 수록된 본풀이는 1956년 3월-1963년 7월에 채록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9) 진성기,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1980, 6면 <일러두기> 참조.

10)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서경본」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전하는 것이 있지만, 심방의 구연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이 자료 또한 우선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필 서사무가 <세경본풀이> 이본은 총 8편이 된다. 채록 시기로 보면 일제 강점기에서 5,60년대를 거쳐 최근까지 걸쳐 있고, 구연자의 주요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촌, 제주시, 동촌 자료가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라산 동쪽 마을-조천, 구좌-의 자료의 수가 많으며,¹¹⁾ 여성 구연자와 남성 구연자가 두루 존재하되 과거의 자료는 남성 구연자인 경우가, 최근 자료일수록 여성 구연자인 경우가 많다.

이중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물론 현용준 채록의 <안사인본>이다.¹²⁾ 진성기 채록의 <강을생본>, <이달춘본>이 멀찍이 떨어져 그 뒤에 자리해 왔다는 점도 첨언해 둔다.

3. <세경본풀이>의 상위 삽화

<세경본풀이>를 구성하는 삽화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자청비의 출생: 부유하게 사는 한 부부가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자치성 끝에 자청비를 얻는다.
- (나)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 남장한 자청비가 문도령을 따라가 같이 지내다가,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문도령은 후일을 기약하고 떠난다.
- (다)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 자청비는 자신을 속인 하인을 죽인다.
- (라) 자청비의 정수남/문도령 재생: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꽃을 따 와 죽은 하인/남편을 살려낸다.
- (마)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와 혼인: 자청비는 문도령과 다시 만나 혼인하기에 이른다.
- (바) 자청비의 좌정: 혼인생활의 문제로 시가에서 나온 자청비는 지상에 내려와 좌정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모든 이본에는 공통적으로 위의 여섯 삽화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서사의 전개 역시 (가)-(나)-(다)-(라)-(마)-(바)의 순서대로 구성된다. 그 구성 삽화를 기준으로 할 때, <세경본풀이>는 이본들 간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일한 예외가 <강을생본>이다. <강을생본>은 위의 삽화가 (가)-(나)-(다)-(마)-(라)-(바)의 순서로 전개된다. (다)정수남을 살해했다고 하여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마)문도령과 다시 만나 혼인하는데, 문도령이 계략에 의해 살해당하자 (라)서천꽃밭의 꽃을 구해다가 남편을 살린다. 다른 이본들에서 (라) 삽화의 핵심은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새를 잡아주고 꽃을 얻어다가 ‘정수남’을 살리는 데 있는데, <강을생본>에서는 이러한 핵심적 행위가 ‘문도령’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으로 남편인 ‘문도령’을 살린다는 이야기는 <이달춘본>, <안사인본>, <이용옥본>에도 등장하지만 이들 세 이본의 경우 이 이야기는 (라) 삽화와는 별도로 (바) 삽화의 하위단락으로 존재하므로,¹³⁾ (가)~(마)의 전개를 따르지 않는 이본은 <강을생본>에 국한된다.¹⁴⁾

11) 박봉춘은 서귀포, 강을생은 한경면 고산리의 심방이다. 이달춘과 안사인은 제주시에서 거주하지만 활동 지역이 구좌나 조천까지 미쳤다고 하며, 고대중은 송당 본향당 매인심방인 고봉선의 장남이다. 안사인과 한행수, 이용옥 등도 동쪽 마을 심방 무계에 속한다.

12) 박경신, 앞의 글에서 <안사인본>은 원형에 가까운 이본으로 판단되었고, 또 그 표준어역이 병기(『한국 고전문학전집-제주도무가』)된 사례가 있어 접근이 용이했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 아닐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자청비와 문도령의 혼인 후 문도령이 살해당하는 하위 단락이 있는 각편이 있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꽃을 가져다 남편을 살린다. 상세한 것은 본고 4장 (바) 삽화 논의 부분 참조.

4. 삽화별 하위 단락의 대비

(가) ‘자청비의 출생’ 삽화의 하위 단락

(가)자청비의 출생 삽화를 이루는 하위 단락을 모두 제시하고 이본별로 그 단락의 유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부유하나 자식없는 자청비 부모	△	○	○	○	○	○	○	○
무자 슬픔	○	○	○	○	○	○	○	×
시주승의 기자치성 권유	○	○	○	○	○	×	○	○
재물 준비	○	○	○	○	○	○	○	○
다른 절 중을 만남	○	○	○	×	×	×	×	×
불공	○	○	○	○	○	○	○	○
출산의 동티	○	○	○	○	○	○	○	○
여자아이를 낳을 태몽	○	○	○	○	×	○	○	○
출산과 생육	○	○	○	○	○	○	○	○

표 4 (가) 삽화 하위 단락의 이본별 유무 양상

이본들 공히 공유하고 있는 하위 단락을 토대로 하면, 이 삽화는 ‘부유하나 자식이 없는 한 부부가 재물을 준비하여 불공을 드렸으나 부모의 잘못으로 여자아이를 점지받아 낳았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드러내는 단락이 <이용옥본>을 제외한 모든 본에 있는데 이는 ‘자식없는 자청비 부모’의 상황을 극진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본의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또, <한행수본>에는 ‘시주승의 기자치성 권유’ 단락이 없는데, 이에 이어지는 재물을 준비하여 불공을 드린다는 단락이 공통되므로 이러한 차이도 별로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는다.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해 주는 태몽 단락이 <안사인본>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임이 미리 예언되었기에 유무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삽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출산의 동티’ 때문에 불공을 드렸음에도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단락의 유무 측면에서 이본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다른 절 중을 만’난다는 하위 단락이다. 이 단락이 없는 이본은 단순히 재물이 한 근 부족하여 여자아이가 점지되었다고 하며, 이 단락이 있는 이본은 다른 절 중을 만난 것이 사단이 되어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박봉춘본>과 <강을생본>에서는 불공드릴 절을 바꾸게 되어 원래 권재받기로 한 절 중이 조화를 부리는 탓에, <이달춘본>에서는 다른 절 중을 만나는 바람에 재물이 한 근 축난 탓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 삽화의 하위 단락에서 이본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내용은 자청비가 왜 여자아이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둔다.

14) <강을생본>에서 자청비에게 살해당한 정수남은 자청비가 오곡씨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재생의 순간을 맞는다. 강을생 심방의 활동 지역과 그다지 멀지 않은 한경면 저지리의 한 여부는 “양반보다 상놈을 먼저 살릴 수는 없”기에 이런 순서로 본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영숙,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면.

이본	자청비가 여자아이로 태어나게 된 이유
박봉춘본	동개나무사로 불공드리러 갈 것을 서개나무사로 바꾸니, 동개나무사 대사가 시기하여 하녀 정수덕에게 남자아이를 점지함. ¹⁵⁾
이달춘본	다른 절 중을 만나는 바람에 재물 한 근이 부족해짐.
강을생본	동개남으로 불공드리러 갈 것을 서개남에 가니 동개남 대사가 여자아이를 점지함
고대중본	재물 부족
안사인본	재물 부족
한행수본	재물 부족
강순안본	재물 부족
이용옥본	재물 부족

표 5 자청비가 여자아이로 태어나게 된 이유

선행연구에서 종종 언급되었던 ‘자청비’라는 이름의 내력도 이 단락에 등장하는데, <박봉춘본>과 <한행수본>에는 이름의 내력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불공을 드려 자청하여 낳은 아이라서 ‘자청비’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편적이다. 특히 <강을생본>에서는 ‘가령나다 가령비 자청나다 자청비’라는, 제주도의 <자청비 설화>에 등장하곤 하는 긴 이름이 등장한다. ‘자청비’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한 터이므로, 이 역시 표로 정리해 둔다.

이본	태어난 딸아이의 이름 짓기
박봉춘본	이름은 자청비라고 짓고
이달춘본	우리가 이 애기 낳으려고 애가 타고 공이 들었으니 이름이랑 자청비로 하기가 어떨습니까? ...애기 이름을 자청비로 짓고
강을생본	요란떨며 낳은 아기라 이름일랑 가령나다 가령비로 자청나다 자청비로 이름을 지어 놓고
고대중본	자청하여 애기씨를 낳았으니 자청비로 이름성명을 지어보자
안사인본	아기씨 이름일랑 자청하여 낳았으니 자청비로 이름 삼 자 짓기 어떨습니까?
한행수본	(자청비가 솟아난다)
강순안본	우리 내외간이 법당 절로 가서 우리 자청하여 낳았으니, 이름 성명일랑 자청비로 지어보기가 어찌하겠느냐
이용옥본	우리가 법당까지 찾아가 자청하여 낳았구나. 자청비로 이름 성명 지어간다

표 6 ‘자청비’라는 이름의 유래

(나)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 삽화의 하위 단락

(나) 삽화의 하위 단락과 이본별 유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유의해야 할 것은 <한행수본>, <강순안본>에서는 하위 단락의 순서가 다른 이본들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두 이본에서는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자청도령과 문도령의 경쟁 단락이 두 사람의 귀가 결정 후에 이어진다. 한편 <한행수본>, <강순안본>은 문도령의 집에서 문도령을 돌아오라고 불러들인 까닭이 자청비 때문에 문도령의 공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걱정 때문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다른 이본과 구분된다. 적어도 (나) 삽화의 하위 단락의 전개에 있어서는 <한행수본>과 <강순안본>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감지된다.

15)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곧 문제의 정수남이 된다.

하위단락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자청비의 첫 외출: 빨래	○	○	○	○	○	○	○	○
자청비와 문도령의 대면	○	○	○	○	○	○	○	○
문도령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자청비의 제안	○	○	○	○	○	○	○	○
자청비가 부모에게 유학을 허락받음	○	○	○	○	○	○	○	○
남장한 ‘자청도령’과 문도령의 대면 (문도령의 의심)	○(×)	○(○)	○(○)	○(×)	○(×)	○(○)	○(○)	○(×)
‘자청도령’이 제시한 금기	○	○	○	○	○	○	○	○
선생의 의심	×	×	○	×	×	×	×	○
자청도령과 문도령의 경쟁	×	○	○	×	○	○	○	○
귀가의 계기	△ ¹⁶⁾	○	○	○	○	○	○	○
자청도령이 문도령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줌: 목욕	○	○	○	○	○	○	○	○
자청비를 쫓아간 문도령	○	○	○	○	○	○	○	○
자청비의 귀가	○	○	○	○	○	○	○	○
문도령의 유숙(합방 여부)	○(○)	○(×)	○(○)	○(×)	○(○)	○(○)	○(×)	○(○)
신표를 남기고 귀가한 문도령	○	○	○	○	○	○	○	○

표 7 (나) 삽화 하위 단락의 유무 양상

이 삽화는 자청비의 ‘남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논의, 자청비를 애정의 성취에 적극적인 인물로 보는 논의에서 종종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위의 표를 일별하면, 빨래하러 나간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게 되고, 자청비가 남장까지 해가며 문도령을 따라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성을 밝히고 문도령과 장래를 약속하게 된다는 내용의 하위 단락이 모든 이본에 공통됨을 알 수 있다. 이본별 차이가 드러나는 하위 단락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는 단락들이 자청비의 남장 및 적극성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본간 차이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글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남장한 자청비, 즉 ‘자청도령’이 여자인지를 의심하는 단락이 있는가의 여부, 그 의심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달리기나 씨름, 오줌 멀리 누기 등으로 자청도령과 문도령이 겨루는 경쟁 단락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경쟁 단락이 있는 경우, 표면적으로 이러한 경쟁은 자청도령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선생이 자청비를 여자가 아냐 의심하는 단락이 있는 <강을생본>과 <이용옥본>은 이러한 경쟁을 통해 자청도령의 성별에 대한 의심이 거두어지고, <한행수본>에서는 선생 아닌 문도령이 성별을 의심하여 오줌 멀리 누기 경쟁을 제안한다. 경쟁 단락이 있음에도 성별 의심이나 확인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달춘본>과 <강순안본>이며, <안사인본>에서는 특이하게 문도령의 자청도령에 대한 시기 때문에 경쟁이 거듭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경쟁 단락은 자청도령이 윗물통에서, 문도령이 아랫물통에서 목욕을 해야만

16) 다른 이본에서는 문도령 집에서 장가 가라는 편지가 와서 두 사람이 귀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박봉춘본>에서는 별다른 계기 없이 자청비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여 문도령이 따라서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유로서도 기능한다. 목욕 단락이 상세하지 않은 <박봉춘본>을 제외하면 모든 이본에서 자청도령은 윗물통에서, 문도령은 아랫물통에서 목욕을 한다. 경쟁 단락이 포함되어 있는 이본에서는 <안사인본>을 제외한 <이달춘본>, <강을생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모두에 자청도령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윗물통에서 목욕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자청도령이 자신의 성을 밝히는 것은 목욕 장면에서이며, 그것은 윗물통에서 아랫물통으로 사실을 적은 나뭇잎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앞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감출 수 있었던(=남성임을 알릴 수 있었던) 자청비는, 이제는 그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성을 드러내는(=여성임을 알리는) 계기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강을생본>, <한행수본>, <이용옥본>(경쟁이 성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본들)의 경우 자청도령=자청비는 고정된 성 구분이나 성 역할에서 자유로운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또한 적어도 이러한 이본의 맥락에 국한해 본다면, 자청비의 남장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대한 항거나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자유로이 성을 바꾸어가면서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듯하다.¹⁸⁾

다음으로, 자청비와 자청비의 방에 머무르게 된 문도령의 합방 여부에 대한 이본 간 차이에 주목해 보자.

이본	합방 여부	합방하지 못한 이유
박봉춘본	○	-
이달춘본	×	“나는 부모님 허락 없이는 문도령 소원을 못 들겠쥬다”
강을생본	○	-
고대중본	×	문도령이 자청비가 바느질하던 상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자청비가 바늘로 문도령 손가락을 찌름.
안사인본	○	-
한행수본	○	-
강순안본	×	“아이고 나는 상다락에 중다락에 하다락에 앉은 노념놀이 하단 바려보난 문왕성 문도령님 생각은 오뎡 잊혔쥬다”
이용옥본	○	-

표 8 자청비와 문도령의 합방 여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의 적극적 성격은 문도령과의 애정의 성취의 측면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한 통념을 생각할 때, 문도령과의 합방에서 ‘부모님 허락’을 핑계로 대거나 ‘노념놀이’ 하다가 문도령을 잊어버렸다는 <이달춘본>이나 <강순안본>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자청비는 정말 문도령과의 애정에 적극적인가?

문도령과의 애정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자청비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는 것은 특히 <강을생본>에 잘 나타난다. 자청비는 자기를 쫓아온 문도령의 “손목을 꼭 잡고” “여자 의복을 차려 와서 우리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며, “문도령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갈 뿐 아니

17) 이와 유사한 견해로, <세경본풀이>에서 반복되는 자청비의 남장이 ‘젠더의 불확정성 혹은 모호성’을 의미한다는 양민주, 위의 글 참조.

18)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떠나기 위해 남장을 하여 자청도령이 되고, 문도령이 다른 여인에게 장가가게 되자 남장을 벗고 여인이 된다. 남자가 되거나 다시 여자가 되거나 하는 것은 문도령과 함께 있고자 하는 자청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라, “문두령 손목을 비어잡고 문두령아 문두령아! 같이 식사상을 받아놓고 이날밤은 너랑 나랑 놀이하자”는 제안에도 서슴없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성이 모든 이본에 공통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컨대 <박봉춘본>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떠난 자청비를 쫓아온 문도령이 자청비의 손목을 붙잡고 범사를 사과한 후 함께 김진국 집을 향하여 간다고 하여 행위의 주도권이 마치 문도령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문도령을 하룻밤(<박봉춘본>에서는 석 달) 자기 방에서 재우고 나서 장가를 가야 하는 본가로 보내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간 두 사람 관계의 진전에 있어 자청비에게 있었던 주도권이 별안간 문도령에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받는다. 이 삽화의 마지막 하위 단락의 구체적 내용을 보자.

이본	신표의 종류	자청비의 말	문도령의 약속
박봉춘본	이중 일입		종자를 심어 과실을 따 먹을 때 상봉
이달춘본	‘도실남씨’ 두 방울		도실씨를 심어 꽃이 피면 자청비 상봉하러 오겠노라
강을생본	‘도실남씨’ 두 방울	“문국성아 문두령아! 본매본짱이나 두고 가라”	열매를 먹고 춘삼월 호시절 드는 날 상대를 하자
고대중본	‘죽씨’ 한 방울		정월 첫 돛날 심으면 알아볼 도리가 있다
안사인본	‘죽씨’ 한 방울	“설운 도련님아... 노각성주부줄로 옥황으로 올라가십시오”	죽이 열어 따게 될 때 내 아니 오건 죽은 줄 알라
한행수본	금실, ‘죽씨’	“본매본짱이라도 놔 두라”	?
강순안본	‘죽씨’ 한 방울	“본매본짱 하나만 놓아두고 가기가 어찌 허오리까?”	
이용옥본	‘도실씨’ 한 방울	“굳은 언약이나 해두고 가십시오”	창가에 심어 열매 맺어 먹고 있으면 내가 오마

표 9 자청비와 문도령의 이별

위의 표에서 보듯, 예컨대 <안사인본>의 경우 문도령이 재상봉을 기약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니 올 수도 하는데도 별 말 없이 ‘옥황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는 자청비의 모습에서 애정 성취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찾기란 그다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단락에서 자청비의 적극성은 역시 <강을생본>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본매본짱’을 요구하여 받는 한편, ‘정근냥 씨’를 문도령에게 주고 그것을 심어 꽃이 피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별은 자청비만 감당해야 할 일방적인 고통이 아니라, 꽃이라도 보면서 견뎌야 할 만큼 문도령에게도 아픈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이본들의 결말 단락과는 그 의미가 달라 보인다.

(다)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 삽화의 하위 단락

(다) 삽화의 하위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삽화의 하위 단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행수본>과 <강순안본>은 하위 단락의 순서에서 다른 이본과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정수남의 속셈을 알게 된 자청비가 ‘나를 만지느니 집에 가서 무엇무엇을 만지는 게 더 낫다’며 정수남과 실랑이하는 내용은 두 이본에서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해하기 위해 정수남 머리의 이를 잡아주는 장면에 나온다.

하위단락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자청비의 정수남 질책	○	○	○	○	○	○	○	○
자청비 심사를 알아챈 정수남	×	×	○	×	×	×	×	×
일하러 갔다가 마소 잡아먹은 정수남	○	○	○	○	○	○	○	○
오리를 잡으려다 낭패본 정수남	○	○	○	○	○	○	○	○
귀가 후 숨어있던 정수남이 발각됨	○	○	○	○	○	○	○	○
정수남의 변명	○	○	○	○	○	○	○	○
자청비가 부모에게 꽃구경을 허락받으려 함	○	×	×	×	×	×	×	×
문도령 찾아 떠날 차비	×	○	○	○	○	○	○	○
정수남의 본심	×	×	×	×	○	×	×	×
정수남이 말을 이용해 자청비를 속임	×	○	○	○	○	○	○	○
정수남이 째 점심을 이용해 자청비의 옷을 벗김	△	○	○	○	○	○	○	○
자청비와 정수남의 실랑이	○	○	○	○	○	○	○	○
자청비의 위기 모면 :움막짓기	○	○	○	○	○	○	○	○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	○	○	○	○	○	○	○	○
말타고 귀가하는 자청비에 따라붙은 정수남의 혼	×	○	○	○	○	○	○	○
산신이 정수남의 혼을 털어줌	×	○	○	×	×	○	×	×

표 10 (다) 삽화 하위 단락의 유무 양상

(다) 삽화의 하위 단락은 이본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박봉춘본>, <강을생본>, <안사인본>에만 있는 하위 단락이 표에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 ‘단락’이라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하위 단락의 유무 양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두 단락이다. <박봉춘본>에는 정수남의 혼이 귀가하는 자청비를 따르는 단락이 없고, 그 혼을 신령이 제거해주는 단락은 <이달춘본>, <강을생본>, <한행수본>에만 있다. 정수남이 말이나 째 점심을 이용하여 자청비를 골탕먹이는 단락도 <박봉춘본>에 없다.

한편, 자청비가 정수남의 귀를 관통하여 살해하는 장면에서 정수남의 귀에서 새가 나온다는 내용이 <박봉춘본>과 <고대중본>에 등장한다는 사실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¹⁹⁾ <세경본풀이>에서 부엉새는 (라) 삽화의 하위 단락에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새와 연관성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뒤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19) <강순안본>에는 직접적으로 죽은 정수남의 귀에서 부엉새가 나온다는 표현은 없지만, ‘정이었인 정수남이 각시 말다 부엉부엉, 정이었인 정수남이 각시 말다 부엉부엉 서방 말다 부엉 부엉 정이었인 정수남이 죽여두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표현상의 유사성으로 보아 <강순안본>에서도 부엉새의 출현을 짐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라) ‘자청비의 정수남 재생’ 삽화의 하위 단락

아래의 표는 (라) 삽화의 하위 단락과 이본별 유무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삽화 역시 하위 단락 구성에서의 차이는 많지 않다.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의 사위가 되는데, 아내와 같은 방에 들고서도 동침을 하지 않는다는 두 단락이 <박봉춘본>에서는 사위로 드는 것을 공부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의 한 단락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아래 표에서 △로 표시)을 제외하면, 자청선비가 자신이 부귀한 집안의 자제라는 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단락의 유무, 이 단락이 <고대중본>에는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의 사위가 된 이후에 위치한다는 점 등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차이의 전부인 성싶다.

하위단락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자청비가 부모에게 쫓겨남	○	○	○	○	○	○	○	○
자청(선)비가 새에 화살을 쏴음	○	○	○	○	△ ²⁰⁾	○	○	○
자청선비의 서천꽃밭 진입	○	○	○	○	○	○	○	○
말을 이용한 자청선비의 위세 과시	×	×	×	○*	○	○	○	○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의 문제 해결: 새를 잡음	○	○	○	○	○	○	○	○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의 사위가 됨	△	○	○	○	○	○	○	○
자청선비의 합방 거부	△	○	○	○	○	○	○	○
자청선비의 서천꽃밭 꽃 획득	○	○	○	○	○	○	○	○
자청선비와 꽃감관 딸의 작별(신표)	○(△)	○(×)	○(○)	○(×)	○(×)	○(○)	○(○)	○(○)
자청비가 정수남을 되살림	○	○	○	○	○	○	○	○

표 11 (라) 삽화 하위 단락의 유무 양상

그러나 각 단락이 구체화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이본별 차이가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였다 하여 부모에게 쫓겨나는 단락에서 <강을생본>과 <안사인본>의 경우 자청비가 땅에 뿌린 좁씨를 거두어 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는 최종적으로 ‘세경’이라는 일종의 농경신으로 좌정하는데 정작 본풀이 서사에는 그러한 직능의 근거가 되는 요소가 부족한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달춘본>과 <강을생본>에는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을 기웃거리 개가 짖자 세 딸들이 차례로 나와 누가 왔는가 확인하는, 다른 이본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강을생본>에서는 이후, 자청선비가 새를 잡은 다음 막내딸의 부탁에 의해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새를 이용하여 서천꽃밭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단락에서도 이본 간 구체적인 표현이 차이를 볼 수 있다.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이용옥본>은 자청

20) <안사인본>에서는 활로 새를 쏘거나 새에 화살을 쏴았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자청(선)비가 부엉새를 서천꽃밭에 던져 넣는다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서천꽃밭 주인을 만난 자청비는 화살을 쏘아 맞힌 새가 서천꽃밭에 떨어졌다고 말한다.

선비가 우연히 얻은 새에 화살을 쏴서 서천꽃밭에 던져 넣었다고 하고, <한행수본>과 <강순안본>은 활을 쏘아 맞힌 새가 서천꽃밭 안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단락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대중본>이다. 자청선비는 우연히 얻은 새에 화살을 쏴서 서천꽃밭으로 던져넣거나 직접 활을 쏘아 새가 서천꽃밭에 떨어지도록 하는데, <고대중본>에는 이 두 가지가 병렬되어 있다. 자청선비가 쏜 화살에 맞은 새를 아이들이 다두고, 그것을 다시 자청선비가 아이들에게서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중본>에는 다른 본에는 없는 새의 환생이라는 화소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자청선비가 새에게서 화살을 빼내어 서천꽃밭에 던지니 새가 다시 살아나고, 이 새가 서천꽃밭에 흥함을 준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서천꽃밭 감관이 자청선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서천꽃밭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새를 잡아주기를 바라서이므로, <고대중본>에 따르면 자청선비의 계획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자청비의 주도면밀함과 능력이 다른 이본에 비해 더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본	선비들과 활쏘기 내기	아이들에게서 새를 얻음	길에서 새를 습득	새에 화살을 쏴음
박봉춘본		○		부영이 귀에 화살을 쏴음
이달춘본		○		부영이 가슴에 화살을 쏴음
강을생본		○		궁덕새 귀에 화살을 쏴음
고대중본	△(내기 없음)	○		부영새를 맞힘 (->화살 제거, 부영이 환생)
안사인본		○		
한행수본	○			비둘기를 맞힘
강순안본	○			부영새를 맞힘
이용옥본			○	부영새에 화살을 쏴음

표 12 자청비의 새 획득 양상

이렇게 하여 서천꽃밭에 들어가게 된 자청선비는 서천꽃밭의 골칫거리인 새를 잡게 되는데, 그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 <세경본풀이> 대본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안사인본>에서는 자청비가 옷을 벗고 누워 “정수남아, 혼정이 있다면 부영새 몸으로 환생하여 원한진 내 젖가슴 위에나 올라 앉아 보아라.”라고 한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의 표현만을 놓고 보면 부영이=정수남 관계가 성립하는 이본은 <안사인본> 뿐이다. <이달춘본>이나 <강을생본>, <강순안본>에서는 옷을 벗고 누운 자청비가 배 위에 앉은 새를 잡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대중본>과 <이용옥본>은 여기에 더하여 배가 따뜻해서 새가 날아왔다고 설명한다.

앞서 살핀 (다) 삽화에서 귀를 찢려 죽은 정수남의 귀에서 새가 나왔다는 점, 자청선비가 서천꽃밭에 진입하기 위해 새를 이용한 점, 자청비가 새를 잡기 위해 맨 몸을 이용했다는 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수남과 부영이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는 듯도 하지만, 현재 이본들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²¹⁾

21) 따라서 부영이가 곧 정수남의 혼이라고 보는 견해(박경신, 앞의 글, 292면)는 좀더 숙고될 필요가 있다.

(마)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와 혼인’ 삽화의 하위 단락

(마) 삽화의 하위 단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과혼당한 서수왕 따님아기의 죽음 여부, <박봉춘본>에 며느리감을 시험하는 단락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단락 구성에 있어 유의미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위단락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자청비가 부모에게 쫓겨남	○	○	○	○	○	○	○	○
자청비와 수양어머니의 만남	○	○	○	○	○	○	○	○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 계기: 옷감짜기	○	○	○	△ (침새질)	○	○	○	○
수양어머니의 기대 및 합방 준비	○	○	○	×	△	△	○	○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름	○	○	○	○	○	○	○	○
자청비가 수양어머니에게 쫓겨남	○	○	○	○	○	○	○	○
자청비가 중의 행색을 함	○	○	○	○	○	○	○	○
자청비의 상천	○	○	○	○	○	○	○	○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	○	○	○	○	○	○	○	○
문도령의(서수왕따님아기와의) 과혼 선언	○	○	○	○	○	○	○	○
문도령 부모의 며느리감 시험	×	○	○	○	○	○	○	○
서수왕 따님아기의 죽음	○	×	×	○	○	×	×	○

표 13 (마) 삽화 하위 단락의 유무 양상

(마) 삽화의 하위 단락에서 그 구체적 표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청비가 자신을 찾아온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재회에 실패하고 양어머니로부터도 내쫓김을 당한다. 도대체 자청비는 왜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른 것일까? 또 이러한 내용의 서사는 신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먼저 각 이본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자.

이본	문도령이 손가락을 문 틈으로 내민 이유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른 이유	문도령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
박봉춘본	없음	밤중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창구멍을 뚫으려 함	1. 날냄새 날궂네 2. 곱기는 하나 마음이 고약하다
이달춘본	자청비가 문도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함	귀신인지 생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가 나서 부정함 ("에이, 부정한 년 하고는!")
강을생본	자청비가 문도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함	귀신인지 생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손가락이 아파서 화를 냄
고대중본	자청비가 문도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함	반가워서("반가운 김에 침새 질하다가 침새 끝으로 손을 찌르니")	날궂네가 나서

이본	문도령이 손가락을 문 틈으로 내민 이유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른 이유	문도령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
안사인본	자청비가 손가락을 내밀라고 함	반갑고 기뻐서(“반갑고 기쁜 김에 바늘로 손가락을 쪽 찌르니”)	부정 서정이 많아서(인간에 사람 올 데 아니로구나)
한행수본	자청비가 문도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함	귀신인지 생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뫼내가 나서(하늘 사람이라서)
강순안본	자청비가 문도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함	괴씸한 생각이 나서	날뫼내가 탕친해서(하늘 사람이라서)
이용옥본	자청비가 문도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함	괴씸한 생각이 나서 *“요 문도령 아니면 내가 어이 이 고생을 하며, 이와 같이 부모를 이별하여 이내가슴 불 붙여놓아 이러리”	(피가 나니)부정하고 서정한 인간 땅이어서

표 15 문도령 손가락을 바늘로 찌른 자청비

자청비는 밖에 찾아온 이가 문도령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창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고 한다. <박봉춘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이 같다. <박봉춘본>에서는 손가락이 불쑥 창 구멍으로 들어와 바늘로 찔렸다고 하고, 다른 이본들에서는 그가 귀신인지 생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또는 그가 문도령인 줄 알면서도 반갑거나 괴씸한 마음이 들어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고야 말았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를 보게 된 문도령은 하늘 사람인지라 부정한 날뫼내를 참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고 만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 실패는 결국 문도령이 부정한 것을 못 견디는 하늘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 자청비는 피를 냄으로써 자신과 문도령 사이에 놓인 분명한 경계를 확인한 셈이고, 따라서 그들의 재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청비는 자신이 도와준 삼천궁녀의 보답으로 문도령이 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고대중본>에서는 이러한 상천의 양상이 다른 이본들에 비해 특이하다. 앞서 (나) 삽화의 하위 단락에서 <고대중본>에서의 문도령은 ‘꼭씨’를 자청비에게 주고 떠나면서 ‘첫 뭇날 심으면 알아볼 도리가 있다’는 말을 남겼는바, 그 ‘꼭씨’에서 덩굴이 하늘로 뻗어 드디어 자청비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 곳에서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문도령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자청비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도령의 부모는 ‘내 며느리감으로 적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 <박봉춘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 나타나는 이 단락은 <이달춘본>에서는 서수왕 따님아기와 자청비를 두고 며느리감을 고르는 것으로, 그 외의 이본에서는 자청비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청비가 치르는 시험으로 공통되는 것은 불구덩이에 올린 ‘칼쫂다리’ 위를 걷는 시험이다. 자청비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 며느리로 인정받고 하늘 옥황에서 살게 된다. 문도령과 자청비 사이에 놓여 있던 경계가 이 시험을 통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자청비는 칼날에 베어 피를 흘림으로써 월경의 기원을 마련한다. 여성의 월경이란 곧 새로운 생명의 낳을 수 있다는 생산력의 표시인바, 자청비가 후에 좌정하게 되는 생산신 세경의 서사적 근거를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시험이 자청비의 세경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기도 하다는 것은

<강을생본>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자청비는 옥황에 오르고 문선왕에게 들어가고

“아버지, 소녀가 왔습니다.”

“설운 애기 왔구나.”

(…)

사곳문을 열어 보니 인간 백성 세경밭에 마소를 해서 밭 갈아.

오곳문을 열어 보니 인간 백성 일만 노복이 앉아 세경땅에 밭가는 거, 농사하는 거 구경하니 좋아 지고. 오뉴월에 농사하며 조 밟는 것도 좋아지고. 오월 유월에 노복 내여 앓혀 김매는 것도 좋아지고. 칠팔월에 세경땅 오곡풍등 농사 좋아지고. 구시월에 갓은 곡식이 깃누렇게 단풍 든 거 좋아지고. 시 월 동짓월에 갓은 곡식 비여 건어 쌓아 놓은 거 좋아지고. 동시 선달에 새 베어다 집 이는 것도 좋아지고.

옥황이 문선왕이 자청비에게 말을 하되,

“이 중 무슨 꽃이 가장 좋으냐?”

(…) 자청비는 “면화꽃이 그 중 곱습니다.”하니,

“어째서 면화꽃이 고우냐?”

다시 자청비가 말을 하되,

“아이고! 아바님아. 인간백성 옷 해서 입는 게 아릅니까? (…)”

그젠 문선왕이 말을 하되,

“설운 애기, 너는 세경으로나 들어서겠구나.(밀줄 필자) 어서 내려서서 문국성 문도령하고 살림하여라.(…)”

요컨대, 이러한 시험 과정을 거쳐 자청비는 ‘세경 자질이 있는 인물’로서 옥황에 받아들여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자청비의 좌정’ 삽화의 하위 단락

우여곡절 끝에 문도령의 아내로 인정받게 된 자청비이지만, 혼인 생활의 안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혼인 이후 인간에 하강하기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삽화의 하위 단락을 나누고 각 이본들의 실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한데, 보다시피 다른 삽화들에 비해 하위 단락의 유무 및 순서에서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1.자청비의 출전	○	×	○	×	○	×	×	○
2.자청비가 피살된 문도령을 살림	×	○	○	×	○	×	×	○
3.문도령이 자청비 대신 서천꽃밭 사위로 간	○	○	○	○	△	○	○	○
4.자청비의 하강	○	○	○	○	○	○	○	○
	1*3-4	2-3-4	1-2-3-4	3-4	2*3-1-4	3-4	3-4	1-2-3-4

표 16 자청비의 혼인 이후 하강까지의 사건

문도령과 혼인한 자청비가 시가에서 나와 하강하기까지 각 이본들에 공통되는 사건은 문도령이 자청비 대신 서천꽃밭의 사위로 간 것이다. <이달춘본>에서는 시부모의 제안으로, 다른 이본들에서는 자청비가 직접 문도령을 자기 대신 서천꽃밭 사위로 보낸다.

그러나 자청비가 변란에 참전하여 군공을 세우거나 살해당한 문도령을 다시 살리는 단락

은 모든 이본들에 공통되는 요소는 아니다. 자청비가 세경의 신직을 받게 된 것은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²²⁾ 위의 표에서 군공이나 문도령 재생은 각각 네 편씩의 이본에만 나타나는 요소임이 확인된다.

위의 삽화에서 이본들에 공통되는 하위 단락인 ‘자청비의 하강’을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자.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하강계기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옴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옴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옴	문도령이 자청비에 게 말도 없이 김정승 따님이 기에게 다시 돌아감	변란을 막은 자청비가 상으로 원함 ²³⁾	문도령의 방치/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옴	문도령의 방치/ 자청비 생각을 오롯이 잊어 부러구나. 몰안장도 거꾸로 앉아 오랍구나	문도령의 방치/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옴
임명주체와 내용	하늘 옥황이 땅 반을 갈라 주면서 오곡씨를 세어나 말아 함	시아버지 문선왕이 오곡씨를 내려 주셨으니 씨나 얻어 살라 함. 시어머니가 네가 데려온 수남을 데려라 함	시아버지 문선왕이 오곡씨를 주면서 중 말을 함. 문도령은 상세경을, 정수남은 하세경을 말함	오곡씨나 주옵소서. 고광에 가 너대로 가져가라	천제왕 백제왕이 땅 한 쪽을 내어 주자. ‘오곡 열두 시만국’을 원하여 받음	스스로 제석 할 망으로 내려섬	스스로 제석 할 머님으로 들어섬	스스로 하강/ 스스로 상천하여 염제 실농씨에게 씨앗을 타 와서 제석할 마님이 됨
곡물씨앗	오곡씨	오곡씨	오곡씨/ 메밀씨와 나물씨	오곡씨	오곡씨/ 메밀씨	하곡씨/ 메밀씨	사곡씨/ 메밀씨	모든 씨앗/ 메밀씨
기타		*문도령이 칠곡씨를 받아 따라 내려옴			*문도령을 거느리고 내려옴			*웃이 나비가 됨

표 17 자청비 하강의 내용

<안사인본>은 자청비가 ‘세벤난’을 막아주는 자에게 ‘땅 한 척 물 한 척’을 준다는 방을 보고 멸망꽃을 이용하여 ‘세벤난’을 막고, 그 대가로 ‘땅 한 척 물 한 척’과 ‘오곡 열두 시만국’을 받아 인간에 내려섰다고 한다. 그러나 <안사인본>을 제외한 다른 이본들에서 자청비가 인간에 내려서게 된 것은 서천꽃밭에 간 문도령의 무심함 때문이다. 실수든 고의든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남편을 보고 자청비는 그것이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는 증거로 판단하며, 자기와 상관없이 서천꽃밭에 가 버리는 남편을 포기하고 옥황에서 나온다.

이본들을 고려하면 자청비가 오곡씨를 받아 인간에 내려설 수 있었던 것이 <안사인본>처럼 전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안사인본> 이외의 이본에서는 혼인

22) 박경신, 앞의 글, 293-294면.

23) <안사인본>에도 문도령이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화소가 있으나, 하강 계기와는 상관 없다.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자청비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시부모가 곡물 종자를 주고 세경직을 주거나, 아니면 자청비 스스로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제석할망’으로 인간에 내려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용옥본>은 더욱 특이한데, 남편 때문에 집을 나가는 자청비를 붙잡느라고 시부모가 옷을 잡아당기자 장물에 작은 옷감이 찢어져 청나비 백나비가 되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내려온 자청비는 다시 ‘염제실농씨’에게 올라가 씨앗을 타서 내려와 제석할머니가 된다.

한편, <안사인본>에서는 자청비가 문도령과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모든 이본들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다. <이달춘본>에서는 문도령이 뒤늦게 칠곡씨를 받아 자청비를 뒤쫓아 오며, <강을생본>에서는 시부모가 문도령은 상세경을, 자청비는 중세경을, 정수남은 하세경을 맡김으로써 자청비가 문도령 및 정수남과 함께 세경땅에 내려선다고 할 뿐, 예컨대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에서는 혼자서 내려와 정수남을 만난다.

이러한 정황은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이라는 관습적 어구도 이본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5. 맺음말

본풀이 이본, 즉 채록된 본풀이 각편들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 같고 다른 양상을 면밀히 드러내는 일은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유형의 본풀이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 좀더 객관적이면서 타당해질 수 있고, 각편들마다 반복되는 요소와 특정 이본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를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각 이본들을 체계적으로 계열화하거나 특정 이본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이본 대비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미루어보면, 서사 단락의 같고 다른 양상을 지적하는 데 그친 본고에서의 이본 대비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세경본풀이>에 대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통념이 그러한 양상 위에서는 설 자리가 그다지 넓지 않다는 사실을 살피는 데 급급한 나머지, 마땅히 살폈어야 할 이본 간 친소성이나 각 이본의 특성을 정리해 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본 대비의 결과로 도출되었어야 할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접근 시도조차 못하고 말았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완과 후속 연구를 약속드린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